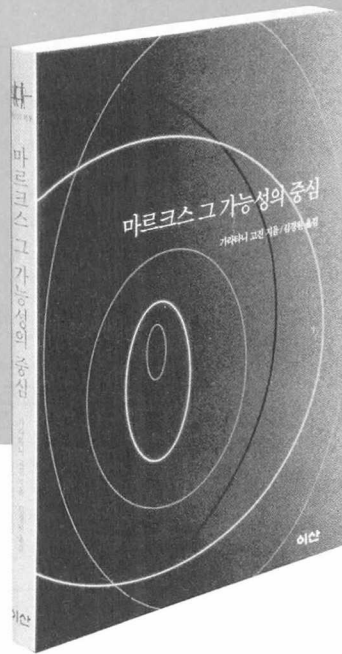


현기증 나는 '유식' 과 구제불능의 '무식'

《마르크스 그 가능성의 중심》

학생의 답안이라면 서슴없이 이 책에 F학점을 매기겠지만,
사계의 권위자 말씀이니 나로서는 채점을 보류하는 수밖에.

다만 본질을 거부하고 중심성을 부정하는
가라타니의 작업은 마르크스를 '우롱하는' 포스트모던 사고와
일맥상통하는 것은 분명하다.



가라타니 고진 지음/김경원 옮김
이산/A5신/264면/10,000원

가라타니 고진(柄谷行人)의 《마르크스 그 가능성의 중심》을 읽은 나의 소감은 한마디로 저자의 현기증 나는 '유식' 과, 매우 실례의 말씀이나 구제 불능의 '무식' 에 대한 동시 병발의 찬탄이었다. 나의 무식은 그에 비할 바조차 아니므로 그의 무식을 탓하는 나의 태도는 독자의 판단에 맡기겠다.

우선 유식이다. 그의 인문학과 사회과학적 소양은 읽기조차 어지러울 만큼 넓고 깊은 것 같다. 이를테면 1990년대 들어서야 우리 지식인 사회에 불기 시작한 각종 포스트모던 사조를 저자는 이 책을 쓴 70년대 초에 벌써 자유자재로 인용하고 있다. 그중의 하나가 소쉬르의 언어학이다. 일례로 나무가 나무인 까닭은 그것이 꽃도 풀도 아니기 때문이며, 따라서 나무의 본질 따위를 캐는 일은 헛수고일 뿐이다. 언어도 그렇다는 것이다. 말에 본질 따위는 없으며, 이 말과 저 말의 '차이' 만 있다는 설명이다.

가라타니는 이 논리를 마르크스 해석에 대입한다. 단절이 아닌 차이와 이동에 대한 관심이 마르크스 자신의 연구는 물론이고, 마르크스에 대한 우리의 연구를 위해서도 올바른 독해라는 것이다. 헤겔과 마르크스의 관계가 그렇고, 청년 마르크스와 후기 마르크스의 관계가 그렇고, 철학과 경제학의 관계가 그렇고, 보나파르트와 프롤레타리아의 관계가 그렇다는 말씀이다. 심지어 마르크스주의와 스탈린주의 사이에도 오직

차이만 있을 뿐이라는

그의 주장은 자칫 '반공 교재' 로 이용당할 위험마저 없지 않다. 이에 대한 시비 판정은 독자의 몫이겠으나, 거기 동원된 저자의 도도한 변설과 화려한 수사는 가히 독자를 압도한다.

그리고 그의 무식이다. 저자는 언어에 본질이 없듯이 가치에도 본질이 없다고 주장한다. 나무에도 풀에도 사용가치만 있으며, 기껏해야 그 사용가치 형태의 차이에서 가치가 나타난다는 주장이다. 가치 분석은 마르크스 경제학의 핵심이며, 가치의 실체를—그 크기와 형태까지—해명한 책이 《자본론》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마르크스는 가치의 본질이 분명히 있다는데, 가라타니는 없는 것이 마르크스에 대한 올바른 해석이라니 참 딱한 노릇이다. 여기도 물론 도피로를 뚫어 놓았다. 작가와 작품의 관계가, 작품과 독자의 관계와 다를 수 있다는 발레리의 관찰이 그것이다. 아무튼 마르크스가 무어라고 썼든 그가 그렇게 읽겠다는 데야 우리한테 무슨 할 말이 있으랴. 그러나 그것이 마르크스 독해의 '가능성' 이라면, 그야말로 무지막지한 배짱이고, 전대미문의 혼동이다.

가라타니의 관점에서 소쉬르의 문자는 마르크스의 화폐에 해당한다. 화폐는 상품 교환의 수단이고, 적어도 현대 사회에서 화폐가 없으면 교환이 불가능하다. 플라톤의 이데아 세계가 아닌 한, 형태가 없으면 실체도 없다는 가라타니의 관

찰은 옳다. 그렇다고 형태가 실체를 대신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화폐 형태만이 진짜이고, 가치는 의제적 허구라는 그의 주장은 옳지 않다. 마르크스에 대한 이런 왜곡이 "나는 마르크스주의에 부정적"이라는 그의 고백으로 미뤄 별로 놀랄 일이 아니다.

그러나 놀랄 일도 있다. 서울에서의 100원짜리 물건을 부산에서 120원에 팔면 20원의 '잉여가치' 가 나온다가, 오늘 100원짜리 물건을 내일 80원에 만든다면 역시 20원의 잉여가치가 생긴다는 설명이 그러하다. 무식은 죄가 아니라지만, 잉여가치가 이처럼 공간적 차이나 시간적 차별에서 발생한다는 최첨단 이론에는 정녕 사회과학이—마르크스적이든 반마르크스적이든—줄도할 지경이다. 학생의 답안이라면 서슴없이 F학점을 매기겠지만, 사계의 권위자 말씀이니 나로서는 채점을 보류하는 수밖에 없다. 다만 본질을 거부하고, 주체를 파괴하며, 중심성을 부정하는 그의 작업이 마르크스를 '우롱하는' 포스트모던 사고와 일맥 상통하는 것은 분명하다.

정운영

경기대 경제학부 교수. 저서 《광대의 경제학》, 《레테의 비망록》 외.